

Research Center

2016년 4월 19일

투자전략 Daily

• 글로벌전략

도하(Doha) 회담 실패, 이후의 유가

• 중화권 증시 동향

유가 · 환율 우려에 중화권 증시 하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엔에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디스플레이, LG이노텍, 디엔에프, 힐라코리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글로벌주식 | 이수정 ☎ 3276-625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11(월)	4/12(화)	4/14(목)	4/15(금)	4/18(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70.37	1,981.32	2,015.93	2,014.71	2,009.10	
	등락폭	-1.68	10.95	34.61	-1.22	-5.61	
	등락종목	상승(상한)	361(2)	446(0)	478(0)	425(1)	333(1)
		하락(하한)	436(0)	368(0)	342(1)	367(0)	481(0)
	ADR	96.67	99.71	101.67	99.98	97.96	
	이격도	10 일	99.53	100.16	101.84	101.68	101.21
		20 일	99.38	99.90	101.54	101.41	101.08
	투자심리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80	387	474	318	336
	거래대금	(십억 원)	3863	3944	6406	4523	4260
코스닥	코스닥지수	693.01	693.45	693.42	695.62	695.34	
	등락폭	-4.09	0.44	-0.03	2.2	-0.28	
	등락종목	상승(상한)	523(3)	499(2)	484(2)	541(4)	449(3)
		하락(하한)	544(0)	559(0)	584(0)	508(0)	607(0)
	ADR	102.62	102.67	102.66	102.98	102.92	
	이격도	10 일	99.99	99.96	99.92	100.13	100.02
		20 일	100.27	100.33	100.33	100.61	100.57
	투자심리	50	50	40	50	40	
	거래량	(백만 주)	558	635	704	694	701
	거래대금	(십억 원)	3,230	3,348	3,569	3,354	3,43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39.0	1,207.0	892.2	198.3	100.9	179.6	110.9	12.9	289.6	29.1
	매도	2,183.4	1,007.1	1,033.2	302.0	93.2	238.3	129.4	11.7	258.7	43.5
	순매수	-44.5	200.0	-141.1	-103.7	7.7	-58.7	-18.5	1.3	30.9	-14.4
	4월 누계	-213.5	1,115.9	-1,384.1	-758.5	-3.2	-341.1	-131.8	-99.3	-50.2	481.7
	16년 누계	-2,263.8	1,833.2	286.6	-56.2	2,580.3	-1,005.6	-1,076.0	-316.7	161.1	144.0
	코스닥	매수	3,157.9	184.0	86.2	24.9	8.0	16.7	10.4	1.3	24.8
매도		3,128.4	179.0	116.8	39.2	7.9	34.5	12.0	0.8	22.5	23.7
순매수		29.6	5.1	-30.6	-14.3	0.1	-17.8	-1.5	0.6	2.3	-4.0
4월 누계		252.2	173.7	-323.7	-46.6	-10.2	-174.4	-36.8	-22.5	-33.3	-102.2
16년 누계		2,258.6	331.4	-1,999.0	-233.5	-125.3	-629.6	-251.8	-93.8	-665.2	-590.9

도하(Doha) 회담 실패, 이후의 유가

2016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10.38배
12MF PBR	0.88배
Yield Gap	8.0%P

- ▶ 17일 산유국 합의 실패: 그러나 시장의 기대는 높지 않았음
- ▶ 유가 급락은 매수 기회: 연말 유가 타겟 50불의 근거는 미국 위주의 공급 감소
- ▶ 최근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

석유 감산 합의의 역사 1986년의 사례

■ OPEC 석유 감산 합의의 역사, 1986년 사례

일요일(4/17일)에 있었던 주요 산유국 간 회담이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 합의 실패 소식이 전해진 뒤 전일 아침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한 때 -7% 가까이 급락했다. 합의 실패는 이란이 참여하지 않는 생산량 동결에 대해 사우디가 강하게 반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1/14일 경제재제 해제 이후 원유 생산 및 수출 증가를 추진하고 있는 이란은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원유 생산을 둘러싼 치킨 게임은 1986년 사례와 가장 비슷하다. 1973년 이스라엘-아랍 국가의 중동전쟁에서 미국 등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사우디 등 아랍 산유국들은 미국에 석유수출 금지를 선언했고, 이에 유가가 급등한 것이 1차 오일 쇼크다. 2차 오일 쇼크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촉발됐는데, 사우디는 공개적으로 석유의 무기화를 천명하며 유가 급등을 이끌었고 이후 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요컨대 1970년대 석유 가격은 사우디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유가가 급등락 할 정도로, 사우디가 글로벌 석유시장의 지배적 승자로 군림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이 북해 유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자 석유시장에서 사우디 등 중동의 지배력은 약화됐다. OPEC의 산유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비 OPEC 국가의 증산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1980년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의 산유량을 1985~86년에는 250만 배럴 이하까지 줄였지만 유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서방의 북해유전 개발과 더불어 이란 및 이라크의 전비충당을 위한 증산, \$100 이상의 고유가에 따라 기존에 채산성이 없었던 유전의 개발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던 중 1985년 9월 영국 마가렛 대처의 석유 가격 자유화 선언은 유가 하락에 불을 당겼다. 이에 이전까지 감산을 통한 유가 하락 방어에 나섰던 사우디는 오히려 증산을 통한 가격 전쟁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했는데, 실제로 1986년 산유량을 2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대폭 늘리게 된다. 이어진 유가 폭락의 여파로 영국과 미국의 석유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미국은 1986년 4월 사우디와 가격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OPEC 국가들이 다시 감산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이후로도 반년 넘는 시간이 더 소요됐다. 1986년 12월에야 OPEC 국가들은 감산에 최종 합의했고, 12월 이전까지 OPEC 내에서도 수차례의 회담 결렬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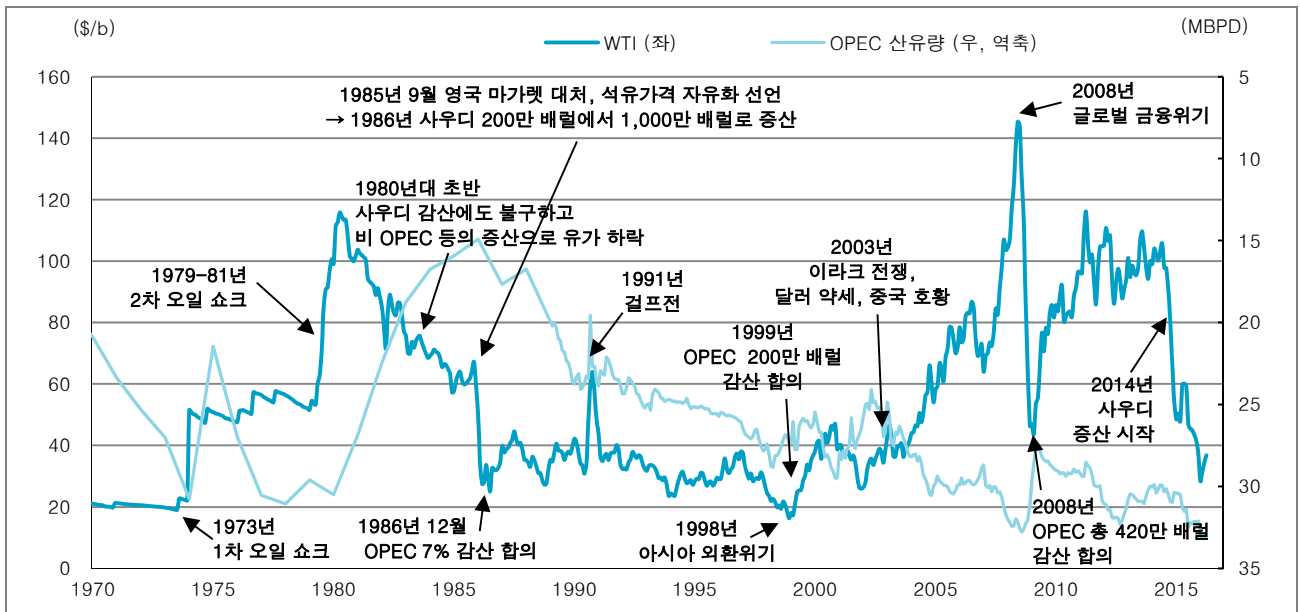
북해 유전이라는 신규 공급원이 개발되면서 사우디가 석유시장의 주도권을 잃었던 상황, 이후의 치킨게임을 통한 유가 급락, 감산 합의에 도달하기 이전까지의 난관 등 당시 상황은 현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수 년간의 가격 하락과 산유국의 고통이 있고 나서 당시에든 결국은 산유국간 감산이 합의됐고, 이를 전후로 유가는 안정을 찾았다.

<표 1> 1986년 석유 전쟁 전후 산유국 합의 히스토리

1984년 10월 17일	- OPEC 회담 감산 합의 도출: 일일 1,600만 배럴로 감산하기로 합의. 그러나 회원국들의 눈속임과 가격 할인에 합의는 무효화 됨
1985년 6월	- OPEC 산유량은 20년 최저치인 일일 1,370만 배럴로 하락
1985년 7월	- OPEC 은 저렴한 북해산 석유에 고객을 빼앗기고, 바스켓 가격을 더욱 낮춤
1985년 12월	- 가격 전쟁 시작. OPEC 산유량 일일 1,800만 배럴로 증가
1986년 2월 3-4일	- OPEC 비엔나 회담 결렬
1986년 4월	- 사우디와 미국, 가격전쟁 종료 합의
1986년 6월	- OPEC 감산 회담 결렬
1986년 12월	- OPEC 회담 감산 합의 도출: 1987년 상반기까지 현재 일일 1,700만 배럴에서 1,600만 배럴 수준으로 7% 감산하기로 합의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1970년 이후 유가 및 OPEC 산유량, 주요 산유국 간 합의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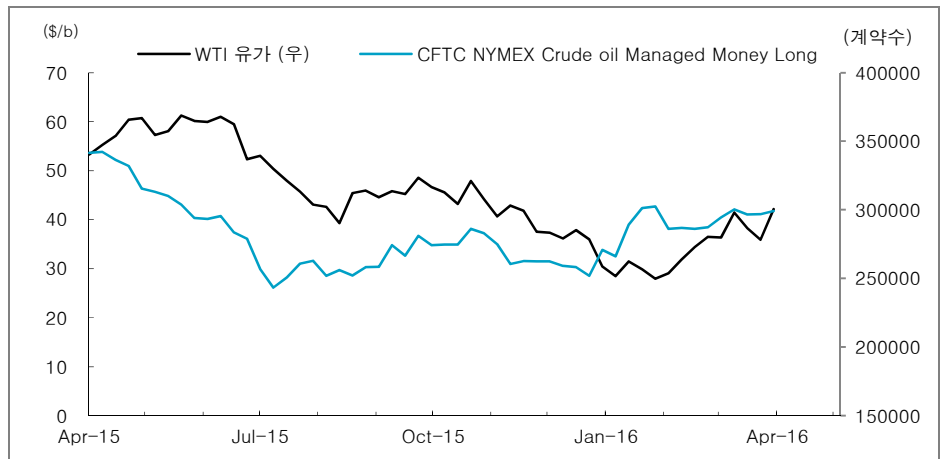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합의 실패 따른 급락은 유가 매수기회

합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던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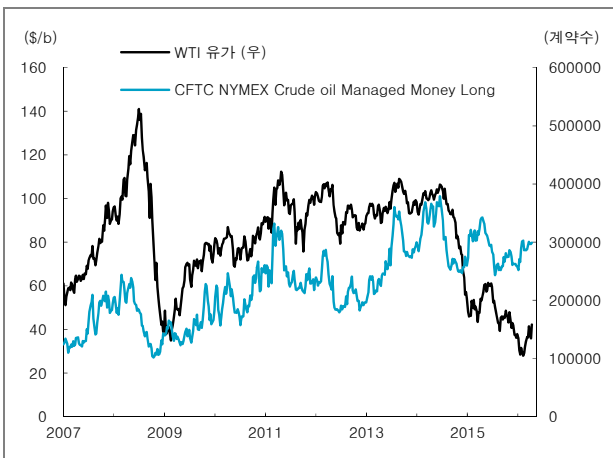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4월 들어 유가가 재차 반등하긴 했지만 이번 도하 회담에서의 합의 기대가 최근 유가 상승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 CFTC에서 집계하는 원유선물 포지션 자료를 보면 헤지펀드의 원유 Long 포지션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미 회담 2~3일 전부터 유가가 하락했던 점 역시 합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거부한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는 회담 전에 이미 “이란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우디는 생산 동결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정 부분 합의에 대한 기대를 미리 낮췄다.

[그림 2] 헤지펀드 원유 선물 롱(Long) 포지션 - 최근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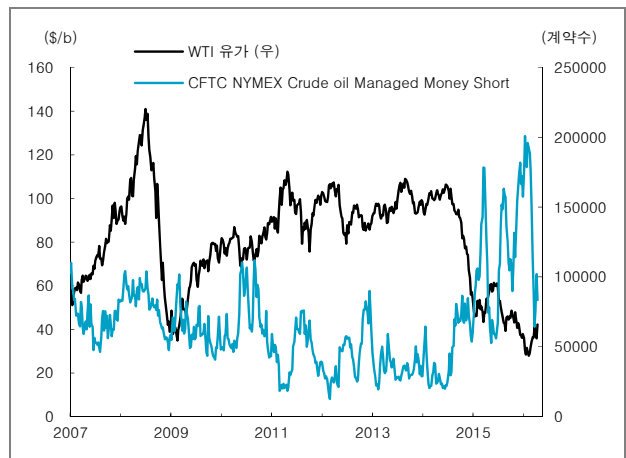
자료: CFTC, Bloomberg

[그림 3] 헤지펀드 원유 선물 롱(Long) 포지션 추이



자료: CFTC, Bloomberg

[그림 4] 헤지펀드 원유 선물 숏(Short) 포지션 추이



자료: CFTC, Bloomberg

유가 급락은 매수 기회

지난 3/9일 발간한 Global Strategic Insight 자료, “유가 \$50: Winner를 찾아라”에서 우리는 올해 안에 WTI 유가가 \$5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산유국 간 합의 가능성은 우리가 유가 반등을 예상하는 근거가 아니었다. 유가 반등의 주된 근거는 유가 급락에 따라 가격에 민감한 주체들의 원유 생산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었으며, 특히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셰일 쪽의 원유생산은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산유국 간 합의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유가 반등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다. 합의 실패에 따른 유가 급락은 좋은 매수기회로 판단한다.

원유 생산과 관련한 산유국 간 합의는 애초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낮은 유가로 베네수엘라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 뿐 아니라 사우디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산유국들의 유가 급락 저지 노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산량 동결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란 역시 유가가 \$30을 밀돌던 2월 당시에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생산 동결 합의에 대해 “유가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노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¹

우리는 유가가 WTI 기준 \$30 수준에서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5년에 peak까지 확대됐던 원유시장의 초과공급이 올해는 작년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30 유가는 초과공급이 크게 늘었던 작년과 이미 비슷한 폭의 하락을 가정한 가격 수준이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미국 셰일 오일 생산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타나면서 초과공급의 축소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문체의 이란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인 3월에 원유 생산이 320만 barrel/day를 기록해 재제가 해제된 1월 중순 이후 40만 b/d 정도 생산이 늘었으나(280만→320만 b/d), 이전부터 경제재제 해제 후 수주 안에 생산을 50만 b/d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해서는 느린 속도다. 3월에 공언한대로 이란이 올해 안에 생산을 100만 b/d 이상 늘릴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이란 역시 유가 급락은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으로는 4월초 빠른 반등 이후 유가 상승의 모멘텀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위 논의들을 고려하면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50일선이 위치한 \$35~\$36 수준에서는 다시 매수를 고려하기 좋은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¹ Bijan Zanganeh, Iran's oil minister, said he “welcomed” and “supported” cooperation between Opec and non-Opec members. “Iran backs any measures which help stabilize the market and improve the price of crude oil,” 2/18일, Bloomberg

[그림 5] WTI 유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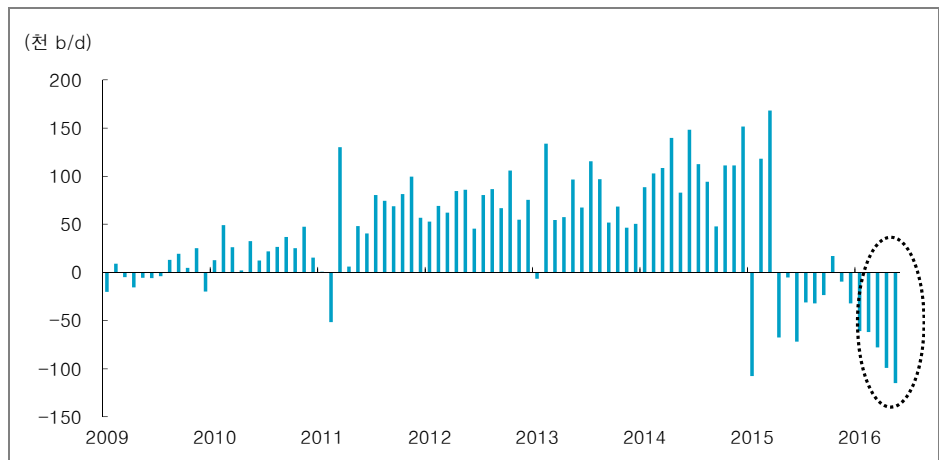
미국 셰일 오일 생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

■ 미국 shale oil 생산, 빠른 속도로 감소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는 매 달마다 “Drilling Productivity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주요 일급 지역의 셰일 오일 생산과 전월 대비 생산 증감 추이를 월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는 자료다. Drilling Productivity Report가 조사하는 7개 주요 지역 셰일 오일 생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위 미국의 “shale boom” 기간 중에 늘어난 원유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 기준으로 미국 전체 원유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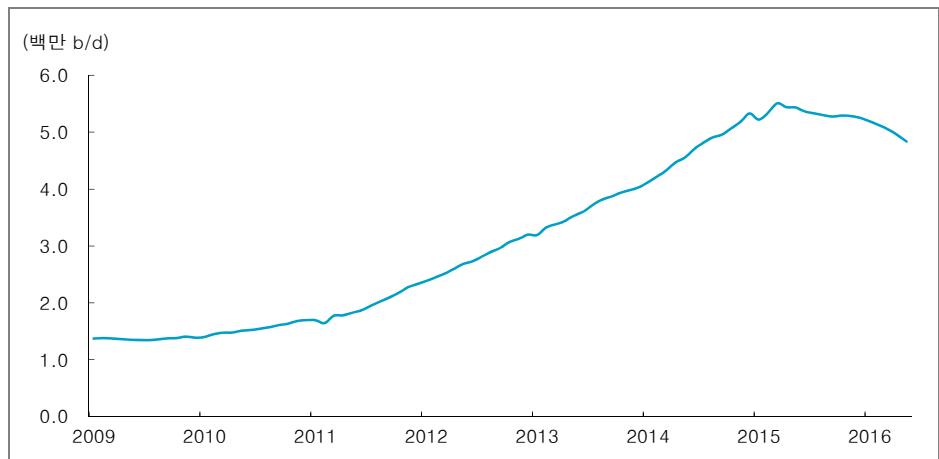
가장 최근인 현지시간 4/11일 발간된 자료를 보면,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은 5월까지 전월 대비 생산 감소 폭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에는 전월비 -6.1만 barrel/day, 2월은 -6.2만 b/d, 3월은 -7.8만 b/d 각각 전월비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4월과 5월은 각각 -9.9만 b/d, -11.5만 b/d 전월비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생산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그림 6] 미국 주요 shale oil 생산 7개 지역, 전월 대비 생산 증감 추이



자료: EIA DPR. 월간 기준, 5월까지 데이터(4, 5월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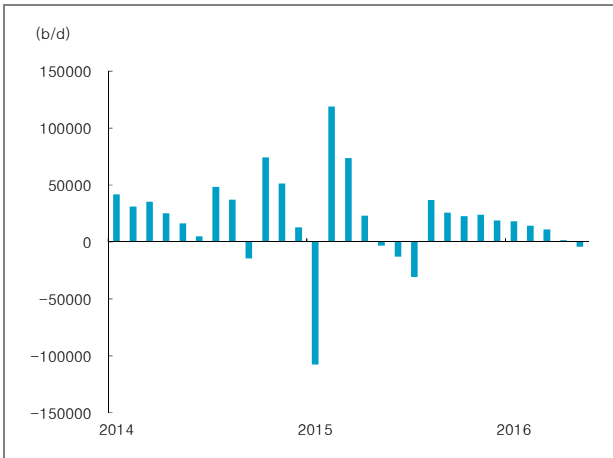
[그림 7] 미국 주요 shale oil 생산 7개 지역, 생산량 추이



자료: EIA D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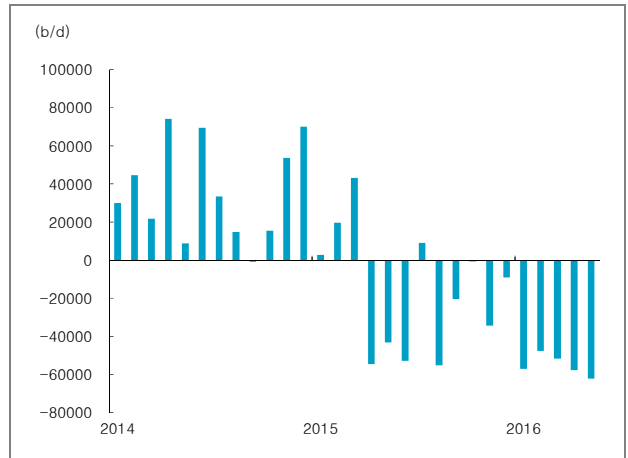
셰일 오일 생산 감소는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 축소로 기존 유전 폐쇄로 인한 생산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로 개발하는 유전의 개수도 줄어들어 신규 유전에서 생산 증분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7개 지역 중에서도 원유 생산이 가장 많은 4개 지역 중 Eagle Ford, Bakken, Niobrara 지역의 셰일 오일 생산은 지속적으로 전월비 감소하고 있고, 생산량이 가장 많은 Permian 지역은 5월에 처음으로 전월비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월간 shale oil 생산 증감: Perm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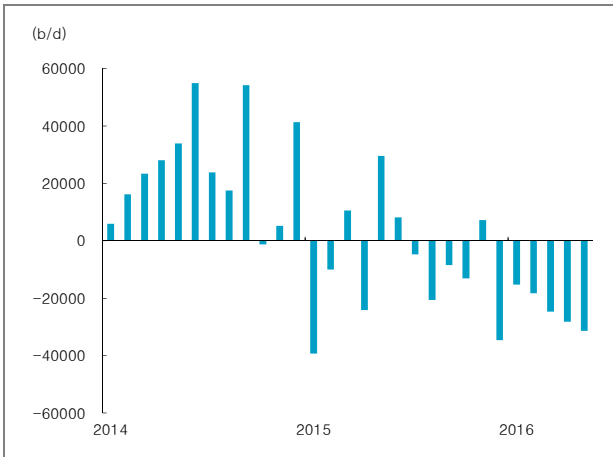
자료: EIA DPR

[그림 9] 월간 shale oil 생산 증감: Eagle F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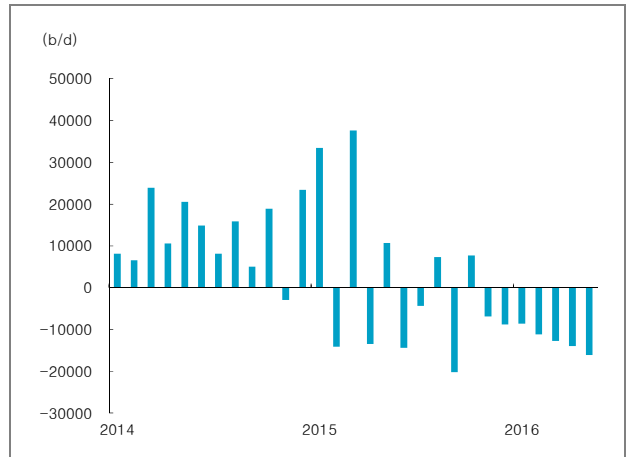
자료: EIA DPR

[그림 10] 월간 shale oil 생산 증감: Bakken



자료: EIA DPR

[그림 11] 월간 shale oil 생산 증감: Niobrara



자료: EIA DPR

1월부터 5월까지 DPR 7개 지역의 셰일 오일 생산은 평균 전월비 8.3만 barrel/day의 속도로 생산이 감소했다. 매월 생산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연말까지 같은 속도로 생산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7개 지역의 올해 연간 생산규모는 작년 말 대비 -19% 감소하게 된다. 2015년말 미국의 전체 원유생산과 비교하면 -11% 생산이 감소하는 정도다.

3월 이후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생산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원유시장의 셰일발 수급 밸런스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다. 여전히 유가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유가 · 환율 우려에 중화권 증시 하락

- ▶ 상해종합지수 1.4% 하락, 대외 약재 속 환율 상승,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약세
- ▶ 홍콩H지수 1.4% 하락, 국제유가 급락, 차익실현 매물 출회, 위안화 약세 등에 투자심리 악화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1.4% 하락,
증권, 의약, 인테리어, 우주
항공, 에너지 등 업종 약세

상해종합지수는 1.4% 하락한 3,034p로 마감했다. 약세 출발한 증시는 장 초반에 빠르게 낙폭을 확대한 뒤에는 그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대금은 2,086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155억위안 줄었다. 일본과 에콰도르 지진의 여파와 산유국 동결 합의 실패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되었다. 3월 70개 신규주택 가격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2.9%를 기록하며 2월대비 1.1%p 크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저우쇼촨 인민은행 행장이 위안화의 고평가를 원치 않는다고 G20 회의에서 언급하면서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고 최근 강세에 따른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 석탄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헬스케어, 증권, 항공, 조선, 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업종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차스닥지수도 금일 1.9% 하락한 2,265p로 마감했으며 외국인들은 후구통을 통해 10.9억위안 순매도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4% 하락,
유틸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 등 대부분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1.4% 하락한 9,091p로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9,000선이 붕괴됐으나 마감직전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했다. 도하 산유국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제원유 가격 급락이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직전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위안화 고시환율 절상에도 불구하고 역내외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유틸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 금융 등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4/18(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033.66	-1.44	-0.01	2.66	-14.28
심천종합	1,952.41	-1.32	-0.00	6.27	-15.44
차스닥	2,265.59	-1.91	-0.77	4.03	-16.52
홍콩H	9,090.85	-1.35	3.22	2.34	-5.90
Shibor 7일물 금리(% , %p)	2.30	0.04	0.00	0.31	-2.25
Shibor 1개월 금리(% , %p)	2.80	0.00	0.00	5.15	-6.76
중국국채 3년물(% , %p)	2.40	-0.15	1.67	1.73	-6.52
위안/달러 고시환율	6.4787	-0.19	0.30	0.25	-0.23
역내 위안/달러	6.4790	-0.05	-0.31	-0.11	0.23
역외 위안/달러	6.4899	-0.06	-0.32	-0.39	1.21

주: 18일 오후 5시 24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산유국 산유량 동결 합의 실패 등으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

- 미국증시는 주요 산유국들의 산유량 동결 협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된 가운데 국제유가가 3% 가까이 하락, 에너지업종 지수가 약세를 보인 것과 엇갈린 경제지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 2,000P선을 위협하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로 하락폭을 다소 줄이긴 했으나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로 2,010P선 아래로 밀려남.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에 기관 매도세가 맞서며 약보합세로 마감. 엔화 강세와 지진 피해 등으로 일본 증시가 3% 이상 급락하고, 산유국들의 산유량 동결합의 실패 소식에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1분기 실적 호조 전망 및 미국 내 성장 기대감에 코스맥스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마카오에 1호점을 개점했다는 소식에 아가방컴퍼니가 강세를 보임. 중국 시장내 성장으로 중국 자회사가 올해 흑자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 CJ CGV가 강세를 보였으며, 부산동서고속화도로와 529억원 규모의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동아지질이 신고가를 경신. 또한, 유럽연합(EU)이 450조원의 기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발주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프랑스, 스페인 등과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낸 바 있는 케이엘넷이 급등했으며, 일본과 에콰도르의 연이은 지진 소식에 지진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 전환 기대감에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삼성생명엔 기대감이 소멸되며 9% 이상 급락했으며, 미국 선에디슨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웅진 에너지를 비롯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코스맥스(192820) ▶134,500(+6.75%)	1분기 실적 호조 및 미국 내 성장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1분기 실적 호조 전망 및 미국법인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지 1년여 만에 40개가 넘는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최근 주요 브랜드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생산 비율을 높이고 있는 데다 화장품 브랜드 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어 ODM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
아가방컴퍼니(013990) ▶9,400(+6.21%)	마카오 1호점 개점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마카오 중심지 세도나 광장에 넥스트맘 마카오 1호점을 프랜차이즈 매장 형태로 오픈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올해 마카오에 3호점까지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며, 홍콩 진출도 추진해 중화권 지역을 공략할 것으로 기대
지진 관련주	일본, 에콰도르 지진 소식에 강세 - 지난 주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는데 이어 에콰도르에서도 7.8의 강진이 발생, 지진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며 관련 종목들 강세 - 파라텍(033540, +6.95%), 삼영엠텍(054540, +11.57%), 포메탈(119500, +2.88%), 유니슨(018000, +2.69%), KT서브마린(060370, +1.25%)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동아지질(028100) ▶8,620(+9.25%)	-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로부터 529억원 규모의 내부순환(만덕~센텀)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를 수주하며 신고가 경신
프리엠스(053160) ▶9,023(+0.33%)	- 미사용 유휴자산 매각에 따른 유동성 확보 및 자산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전주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4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엔에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엔에스 (217820)	17,900 (-1.9)	18,250 (0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부가 환경개선, 에너지 수요 다변화를 위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가운데 완상, 천진 등 중국 메이저 로컬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실적 성장 기대 - 이차전지 패키징과 디계성공정(전지 내 생성된 가스를 상온에서 배출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의 일괄 수주 가능. 턴키방식의 제조설비 구축으로 기술과 가격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향 추가 수주 기대
아진산업 (013310)	9,360 (+15.6)	8,100 (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 -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평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
브리지텍 (064480)	6,340 (+8.4)	5,850 (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 시중은행 중 14개를 고객사로 확보(MS 73.6%), 제1금융권 콜센터 사업영역에서 독보적 점유율 보유한 가운데 제2금융권(카드, 증권, 보험 등)으로의 매출 성장 지속 전망 - 고객상담의 품질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음성인식엔진 내재화로 경쟁력 강화 예상
선창산업 (002820)	13,400 (+15.5)	11,600 (0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저가 합판제품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 작년 사상최대 분양물량에 따른 착공 및 입주물량 증가세 본격화,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제품믹스 개선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 정상화 예상 - 국내 생활용품 펌프 분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다린' 인수, MKTI(Myanmar Korea Timber International) 인수를 통한 미얀마 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로 장기 성장 기반 강화
MDS테크 (086960)	20,600 (-0.2)	20,650 (0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No.1 소프트웨어 개발툴/솔루션의 풀-라인업 판권을 보유한 업체로 다양한 산업들과 IT와의 융합화에 따른 임베디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구조적 성장 예상 - 스마트카 시장 개화, 현대/기아차의 전장화 의지, 국방/항공 부문 SW의 국산화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KT서브마린 (060370)	5,660 (-0.2)	5,670 (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0월 신규 특수 선박인 '리스폰더호' 양수. 이는 1995년 설립 이후 이루어진 첫 대규모 투자 - 국내 독점 해양케이블 공사업체로 데이터 트래픽의 구조적 증가에 따른 해저케이블 시장의 BIG 투자 사이클 도래로 구조적 수혜 예상 - 지연됐던 프로젝트들 재개와 함께 올해 신규 수주와 매출이 동시에 확대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유한양행 (000100)	309,000 (+11.6)	277,000 (03/28)	1,247	72	116	11,337	27.3
			- 기저효과와 함께 전문의약품 성장과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양호한 1분기 실적 예상 - 유한화학(지분 100%)과 유한킴벌리(지분 30%)의 이익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 - 신약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D 아웃소싱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와 지분가치 부각 가능성				
F&F (007700)	14,100 (+0.7)	14,000 (02/11)	439	31	23	1,487	9.5
			- 높은 성장세 지속중인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는 신규 출점과 아이템 확장 등으로 매출 성장 지속 예상 - 작년 메르스로 인한 매출 감소 영향이 컸던 MLB의 매출 회복 및 한국인 메이저리거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 - 디스커버리와 MLB브랜드 매출 확대에 수익성 개선 지속 예상				
삼성전자 (005930)	1,299,000 (+3.1)	1,260,000 (12/30)	204,975	27,248	20,882	145,233	8.9
			- 글로벌 경기 불안과 IT 수요 부진으로 2016년 1분기까지 실적 개선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경쟁력과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투자매력 제고 가능성 상존 -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배당금액 증가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				
현대모비스 (012330)	242,500 (-1.6)	246,500 (12/30)	40,961	3,328	3,812	39,892	6.1
			- 2016년에는 핵심부품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익성을 견인할 전망. - 현대차그룹의 핵심부품 내재화와 친환경 부품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혜 예상 - AS부문의 고수익성과 안정성과 기술력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더존비즈온 (012510)	24,300 (+18.5)	20,500 (12/30)	166	39	31	1,057	23.0
			- 전국 11만 중소/중견 기업과 9천여 개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 -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순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닝 모멘텀 본격화 예상 -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은 기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대비 3배 이상 높아 향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				
삼영무역 (002810)	20,850 (-13.7)	24,150 (12/30)	231	4	27	1,703	12.2
			- 전세계 근시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계열사인 케미그라스가 4개의 생산라인을 통해 연간 6천만장의 렌즈 생산능력을 보유 - 베트남 생산공장(Chemilens Vietnam)은 2016년부터 글로벌 1위 안경렌즈 업체인 프랑스 에실로의 아시아 시장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 지속적인 R&D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 추세 지속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OLED 아이폰이 LTPS LCD패널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

■ 아이폰내 점유율 하락이 기존 패널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아이폰이 OLED를 채택할 경우 LTPS LCD패널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점유율 하락이 패널업체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의 아이폰용 패널공급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7%로 추정된다. LG디스플레이의 아이폰내 패널시장 점유율 40% 기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패널 공급으로 인해 점유율이 최대 20%p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LG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8~9%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기존 패널공급업체들이 아이폰에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을 애플 이외의 스마트폰업체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스마트폰업체들의 LTPS LCD패널 채용이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애플의 LTPS LCD패널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LTPS LCD패널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다. LTPS LCD패널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 채판디스플레이가 In-cell터치 등의 기술적 우위가 있어 애플용 제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잉여 생산능력의 활용은 가능할 전망이다.

■ 2017년 하반기부터 LTPS LCD capa의 OLED라인 전환 가능성 높아

두번째 우려는 LTPS LCD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과 수익성 하락 가능성인데 2017년 하반기부터 LG디스플레이와 채판디스플레이가 기존 LTPS LCD라인을 flexible OLED라인으로 전환할 시기여서 LTPS LCD생산능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라인전환으로 생산량 감소 영향은 있겠지만 공급과잉을 줄여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수익성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현재는 애플 전용라인 사용제한 등으로 상반기에 가동률이 낮아져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데 애플 외 스마트폰업체들에게 공급량을 증가시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면 수익성 하락 위험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모바일사업이 LG디스플레이 주가나 실적에 결정적 역할 한 적 없어

LG디스플레이의 경우 모바일용 패널사업의 실적이 전체 기업의 실적 방향성이 주가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실적의 방향성과 이로 인한 주가의 흐름은 언제나 IT 및 TV패널, 즉 대형패널의 수익성에 따라 움직였다. 그만큼 대형패널의 수익성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바일패널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높아지는 했지만 이익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매우 낮고 변동성도 낮다. 애플 아이폰에 OLED패널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점이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LG디스플레이 주가는 대형패널의 수익성 흐름이 결정한다. 지금은 대형패널의 수급개선과 이로 인한 실적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 모바일사업의 우려로 인한 주가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라는 판단이다. 디스플레이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고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1,000원을 유지한다.

■ LG디스플레이는 2018년부터 아이폰향 OLED패널 공급 시작할 전망

2017년 하반기 아이폰이 OLED패널을 채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패널 공급초기 독점공급 할 가능성은 높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6세대 flexible OLED패널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2016년 내에 6세대 flexible OLED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는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구미에 7.5K/month 규모의 6세대 flexible OLED라인을 구축 중인데 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고객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라인이다. 물론, 애플의 요청 혹은 LG디스플레이의 의지에 따라 아이폰용 패널 생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공급 가능물량은 많지 않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재팬디스플레이 등의 업체가 공급업체에 추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이미 4세대 라인에서 애플 왓치용 플라스틱OLED패널 생산을 하고 있어 2018년 아이폰용 OLED패널 공급 가능성은 매우 높다.

■ LG디스플레이가 아이폰향 OLED패널 사업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

LG디스플레이는 2017년 하반기에 출시될 전망이다 애플의 OLED아이폰에 패널공급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많다. 아직 6세대 flexible OLED패널 생산경험이 전혀 없고 애플이 요구하는 제품 spec을 맞추기 위한 시간도 부족하고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도 충분치 않다. 하지만 과거 선수금을 받고 전용라인을 구축하고 애플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던 LG디스플레이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렇게 LG디스플레이가 애플향 사업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이유는 1) 애플사업의 낮은 수익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을 서두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2) 제한된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중소형 패널사업보다는 대형OLED 패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애플 OLED아이폰향 패널공급을 2018년에 시작할 경우 지금과 같은 점유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요인도 줄어들고 모바일 사업의 높은 애플의존도도 낮아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사업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LG디스플레이 주가에서 애플 프리미엄은 2012년 이후 낮아져 이제는 사라진 상황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애플의 주요 패널공급업체로서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던 시기는 2013년까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했고 LG디스플레이가 받았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낮아지기 시작해 2015년 상반기에는 거의 사라졌다. 현재 LG디스플레이와 대만 AUO간의 밸류에이션 차이는 LG디스플레이의 애플사업 비중이 높아지기 이전인 2011년 수준과 비슷하다. 지금의 밸류에이션 차이는 애플사업 비중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LCD하락사이클에서 대형패널 점유율과 수익성 차이 또는 대형OLED패널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원인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4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이노텍(011070)

중립(하향)

종가(4/15): 81,600원

아이폰 수혜주가 아이폰 피해주로...

■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조정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한다. 다른 IT 부품업체와 차별화된 자동차용 부품의 성장 모멘텀이 강하고 아이폰 내에서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1) 아이폰6S가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해 2Q16까지는 전사 실적모멘텀이 약하고(2016년 아이폰 예상판매대수를 2.17억대로 5% 하향조정), 2) LED 부문이 감가상각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가인하폭이 커 영업적자 축소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강한 실적모멘텀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보수적 투자전략을 권고한다.

■ 1Q16에는 아이폰 관련부품의 부진으로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동사의 1Q16 매출액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1.19조원,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한 61억원으로 우리 예상치(102억원)와 시장 컨센서스(162억원)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아이폰6S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50백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관련부품인 카메라모듈과 반도체기판 등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2) LED 부문의 분기별 감가상각비가 300억원에서 24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LED의 단가인하폭이 예상보다 커서 LED 부문의 영업적자가 전분기대비 80억원 감소하는데 그치며, 3) 타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의 공급차질로 동사가 생산하는 LG전자의 G5 관련부품도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부품차질 이슈까지 감안하면 아이폰7향 부품 납품 개시 이후 실적 모멘텀 회복 전망

아이폰6S의 판매부진은 1) 카메라 기능에서는 화소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의 혁신이 부족했고, 2) 모바일 DRAM이 2GB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증가가 뚜렷하게 체감되지 못했으며, 3) 3D포스터치 기능에 적용되는 애플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일본 규슈 지역 지진으로 관련부품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까지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2Q16까지 아이폰 판매는 전년대비 역성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표3). 올해 9월에 출시될 아이폰7(이미지를 합성하는 듀얼카메라와 소비전력을 감소시키는 패널 등을 장착 예정)향 부품의 납품 개시 이후 실적 모멘텀을 회복할 전망이다.

■ 자동차 부품과 IoT 부품은 순조로운 성장 진행 중. OLED TV향 부품도 비중 상승 전망

다른 IT 부품업체 대비 차별화된 스토리를 보유한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1Q16에도 전분기대비 8%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IoT 부품(WiFi 제외)의 경우에도 15%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순조로운 성장이 진행 중으로 파악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OLED TV향 부품(Tape Substrate, Photo Mask)의 매출 비중도 상승할 전망이다.

■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수준에 머무를 전망. 연간 영업이익은 24% 감소 전망

2Q16에는 IT수요가 성수기에 진입하고 LED 부문도 영업적자가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이폰 관련 부품들의 실적은 전분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사 영업이익은 1분기와 유사한 61억원에 머무를 전망이다. 1분기와 2분기의 부진한 영업이익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아이폰7향 부품과 OLED TV향 부품의 대폭적인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1,705억원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2016년 예상EPS를 5,928원에서 4,187원으로 29% 하향 조정).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6,466	314	113	4,761	517.5	849	23.6	4.4	1.6	7.5	0.2
2015A	6,138	224	95	4,018	(15.6)	706	24.5	4.3	1.3	5.5	0.4
2016F	5,832	170	99	4,185	4.2	590	19.5	4.4	1.1	5.5	0.4
2017F	6,537	297	201	8,479	102.6	722	9.6	3.5	1.0	10.4	0.4
2018F	7,244	414	294	12,437	46.7	844	6.6	2.8	0.8	13.8	0.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4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디엔에프(092070)

매수(유지)

목표가: 25,000원(유지)

종가(4/15): 17,400원

1Q16 Preview: 연말 단가인하의 효과는 예상보다 강했다

■ 예상보다 강한 단가인하 압력 효과로 1Q16 실적은 다소 부진

디엔에프의 1Q16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11% 감소한 140억원,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19% 감소한 34억원(영업이익률 24.2%)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적이 기존 예상치(매출액 156억원, 영업이익 38억원)를 다소 하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은 2015년말 전 제품에 걸쳐 진행되었던 단가인하 압력 효과가 예상보다 강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사 매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DPT(Double Patterning Technology) 소재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20% 감소한 64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순이익은 기존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과 유사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1Q16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다: DPT 46%, High-K 19%, HCDS 19%.

■ 1Q16 저점이후 실적은 의미있게 개선될 전망

이처럼 1Q16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Q16부터는 의미있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1) 3D NAND용 HCDS 소재에 대한 재고소진은 1Q16내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2) 4Q15부터 양산이 시작된 주요 고객사의 3D NAND 48단 제품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동사의 1Q16 HCDS 소재 매출액은 이미 전분기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3) 4Q15부터 다른 국내 고객사로 공급하기 시작한 신규 소재 매출액 또한 연간 10억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5,000원 유지

디엔에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25,000원(2016년 EPS에 글로벌 peer multiple인 16배 적용)을 유지한다. 이러한 요인은 1) 주요 고객사의 3D NAND 48단 공정 비중은 1Q16 5%에서 연말 20%까지 상승하는 만큼 동사의 2016년 HCDS 소재 매출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46원으로 전망되고, 2) 주요 고객사는 올해에도 추가적인 DRAM 미세공정 전환을 진행하면서 동사의 DPT소재는 여전히 확실한 cash cow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3) 동사가 최근에 매입한 공장 부지는 신규아이템의 지속적인 출시를 시사하기 때문이다(3/10 주요사항보고 공시 참조). 2016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 증가한 746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 감소한 189억원(영업이익률 25.4%)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62	15	10	1,038	NM	19	20.1	12.3	5.1	33.9	-
2015A	71	20	17	1,617	55.8	24	9.8	7.1	2.7	33.4	-
2016F	75	19	16	1,486	(8.1)	24	11.7	8.0	2.4	23.1	-
2017F	82	21	18	1,642	10.5	26	10.6	7.1	2.0	20.5	-
2018F	92	24	20	1,877	14.3	29	9.3	6.0	1.6	19.2	-

*상기 보고서는 2016년 4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힐라코리아(081660)

매수(유지)

목표가: 142,000원(유지)

종가(4/15): 101,500원

Acushnet 가치 재점검 시점

■ Acushnet 연내 뉴욕 증시 상장 예정, 힐라의 지분 가치는 9,000억원대 예상

이변이 없다면 Acushnet은 연내 뉴욕 증시에 상장 예정이다. 관련된 불확실성이 소멸되고 Acushnet의 실질 가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Acushnet IPO 시 시가총액은 2.7조원, 힐라코리아의 지분은 33.4%로 지분 가치는 9,100 억원으로 예상된다. IPO 시가총액은 목표 EV/EBITDA 12배를 적용해 산출, 경쟁사인 Callaway의 2016년 EV/EBITDA는 16배다. 힐라코리아 밸류에이션에서 Acushnet 가치는 30% 할인을 적용한 6,400억원으로 반영했다. IPO는 2~3분기 중 예상, 공모 규모는 미정이고 구주 매출로 진행될 것이다.

■ Acushnet, 글로벌 1위 골프용품 업체, 인수 이후 실적 개선과 시장 지위 상승

Acushnet은 ‘Titleist’, ‘Footjoy’, ‘Pinnacle’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골프용품 1위 업체다. 2015년 매출액은 약 1.7조원(15억 달러), EBITDA 2,500억원 (2.2억 달러)을 기록 추정, 인수 직전 2010년보다 매출액은 약 29%, EBITDA는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공과 신발 등 소모성 제품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주요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이다. 아시아 성장과 미주 회복, 경쟁 업체 부진 속에 MS가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 원가 절감 노력으로 수익성도 개선되었다.

■ IPO 이후 Acushnet과 힐라코리아 실적 정상화

동사와 미래에셋 등 PEF는 Acushnet을 100% 보유한 Alexandria Holdings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IPO 이후 Alexandria Holdings와 Acushnet의 실적 변화가 크다. 특히 Alexandria Holdings와 Acushnet 실적 괴리 요인인 금융 비용과 부채평가손실이 Alexandria Holdings의 CB, RCPS 등의 부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소멸된다. Acushnet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연간 4,000만 달러에 달했던 IPO 총당금 설정이 2015년 일단락되었다. 힐라코리아는 2015년 대규모 지분법 손실을 기록했으나 향후 연간 40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지분법 이익이 발생한다. 연결 실적으로 반영 시에는 지배주주순이익은 동일하나 매출과 이익 규모가 대폭 증가한다.

■ 지분 가치 부각 계기, 중장기 속제는 Acushnet 성장 전략과 힐라 브랜드 재건

골프 산업 부진 속에 Acushnet이 상장 이후 어떤 전략으로 추세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힐라코리아에 대한 투자는 자회사인 Acushnet 뿐 아니라 힐라 브랜드의 건재가 필수적이다. 상기 요인은 중장기적인 속제나 2017년 기준 PER이 10.4배에 불과, 힐라 브랜드 부진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향후 점진적인 턴어라운드 가능성, 미주 및 중국에서의 성장, Acushnet 지분 가치 부각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목표주가 142,000원 (SOTP, 2017년 내재 PER 15배)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797	94	56	5,418	(44.3)	103	20.6	13.7	2.0	10.4	0.2
2015A	816	81	(133)	(11,987)	NM	90	NM	15.0	2.2	(25.2)	0.3
2016F	869	96	93	8,195	NM	107	12.4	12.9	2.0	17.7	0.3
2017F	925	115	110	9,752	19.0	127	10.4	10.2	1.7	17.7	0.3
2018F	989	125	121	10,702	9.7	137	9.5	8.8	1.4	16.5	0.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4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증시지표

구분		4/11(월)	4/12(화)	4/14(목)	4/15(금)	4/18(월)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1,970.37	1,981.32	2,015.93	2,014.71	2,009.10	
	등락폭	-1.68	10.95	34.61	-1.22	-5.61	
	등락종목	상승(상한)	361(2)	446(0)	478(0)	425(1)	333(1)
		하락(하한)	436(0)	368(0)	342(1)	367(0)	481(0)
	ADR	96.67	99.71	101.67	99.98	97.96	
	이격도	10 일	99.53	100.16	101.84	101.68	101.21
		20 일	99.38	99.90	101.54	101.41	101.08
	투자심리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주)	380	387	474	318	336
	거래대금	(십억원)	3863	3944	6406	4523	4260
코 스 닥	코스닥지수	693.01	693.45	693.42	695.62	695.34	
	등락폭	-4.09	0.44	-0.03	2.2	-0.28	
	등락종목	상승(상한)	523(3)	499(2)	484(2)	541(4)	449(3)
		하락(하한)	544(0)	559(0)	584(0)	508(0)	607(0)
	ADR	102.62	102.67	102.66	102.98	102.92	
	이격도	10 일	99.99	99.96	99.92	100.13	100.02
		20 일	100.27	100.33	100.33	100.61	100.57
	투자심리	50	50	40	50	40	
	거래량	(백만주)	558	635	704	694	701
	거래대금	(십억원)	3,230	3,348	3,569	3,354	3,432

◆주체별당일순매수동향

(단위: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등)	기타	
유 가 증 권	매수	2,139.0	1,207.0	892.2	198.3	100.9	179.6	110.9	12.9	289.6	29.1
	매도	2,183.4	1,007.1	1,033.2	302.0	93.2	238.3	129.4	11.7	258.7	43.5
	순매수	-44.5	200.0	-141.1	-103.7	7.7	-58.7	-18.5	1.3	30.9	-14.4
	4월누계	-213.5	1,115.9	-1,384.1	-758.5	-3.2	-341.1	-131.8	-99.3	-50.2	481.7
	16년누계	-2,263.8	1,833.2	286.6	-56.2	2,580.3	-1,005.6	-1,076.0	-316.7	161.1	144.0
코 스 닥	매수	3,157.9	184.0	86.2	24.9	8.0	16.7	10.4	1.3	24.8	19.7
	매도	3,128.4	179.0	116.8	39.2	7.9	34.5	12.0	0.8	22.5	23.7
	순매수	29.6	5.1	-30.6	-14.3	0.1	-17.8	-1.5	0.6	2.3	-4.0
	4월누계	252.2	173.7	-323.7	-46.6	-10.2	-174.4	-36.8	-22.5	-33.3	-102.2
	16년누계	2,258.6	331.4	-1,999.0	-233.5	-125.3	-629.6	-251.8	-93.8	-665.2	-590.9

주:외국인은외국인투자등록이되어있는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KOSPI기관별당일매매상위업종및종목

(체결기준: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운수장비	7,351	미분류	-17,446	운수장비	34,324	보험업	-22,730
기타금융업	4,634	철강금속	-12,762	화학	12,365	서비스업	-20,963
보험업	891	전기전자	-11,267	전기전자	8,593	유통업	-5,141
삼성생명	5,942	삼성전자	-10,381	현대모비스	11,053	SK이노베이션	-13,818
한화케미칼	5,607	POSCO	-8,805	현대차	10,893	삼성생명	-13,321
CJ CGV	4,016	KODEX 200	-8,143	기아차	10,600	SK	-6,323
SK	3,843	SK이노베이션	-6,217	삼성전자	9,688	고려아연	-6,209
LG생활건강	3,554	S-Oil	-4,271	아모레퍼시픽	5,718	대한항공	-5,145

(체결기준:백만원)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운수장비	2,010	철강금속	-1,568	운수장비	8,997	서비스업	-8,737
음식료	1,013	건설업	-929	기타금융업	6,565	미분류	-4,452
보험업	892	기타금융업	-576	음식료	2,728	보험업	-4,250
KODEX 인버스	10,358	KODEX 레버리지	-4,035	기아차	3,567	SK이노베이션	-5,447
기아차	1,365	TIGER 경기방어	-3,128	현대차	2,876	엔씨소프트	-2,791
아모레G	1,238	KODEX 200	-1,755	하나금융지주	2,512	LG화학	-2,199
현대차	959	POSCO	-912	우리은행	2,183	고려아연	-2,174
삼성생명	604	SK	-722	LG생활건강	2,088	삼성생명	-2,094

◆KOSPI기관/외인당일매매상위업종및종목

(체결기준:백만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운수장비	50,263	서비스업	-64,143	서비스업	55,801	운수장비	-13,784
음식료	12,744	보험업	-54,851	화학	43,124	보험업	-9,334
기타금융업	11,722	철강금속	-30,798	철강금속	39,186	미분류	-6,544
기아차	20,966	SK이노베이션	-30,306	POSCO	24,829	SK하이닉스	-36,330
현대모비스	15,901	삼성생명	-28,163	SK이노베이션	24,088	삼성생명	-13,831
현대차	11,979	POSCO	-18,430	LG전자	21,239	현대모비스	-12,353
삼성전기	10,501	삼성전자	-13,912	삼성전자	19,215	호텔신라	-11,119
LG생활건강	10,182	LG화학	-12,153	LG화학	16,231	LG디스플레이	-5,741
CJ CGV	9,560	NAVER	-12,027	금호석유	13,897	SK텔레콤	-4,727
코스맥스	9,439	S-Oil	-11,592	신한지주	11,752	엔씨소프트	-4,213
호텔신라	9,015	고려아연	-10,881	S-Oil	11,334	오뚜기	-4,043
한전KPS	6,791	대한항공	-8,611	고려아연	11,321	롯데케미칼	-3,988
CJ	6,535	한미사이언스	-8,268	아모레퍼시픽	11,224	한국항공우주	-3,395

주:외국인은외국인투자등록이되어있는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KOSDAQ기관별당일매매상위업종및종목

(체결기준:백만원)

투신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1,636	제약	-4,566
오락,문화	926	디지털컨텐츠	-3,162
출판,매체복제	624	반도체	-2,861
CJ E&M	1,957	셀트리온	-2,22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949	웹젠	-2,038
티씨케이	649	에스에프에이	-1,387
씨젠	646	바이넥스	-997
로엔	624	AP시스템	-834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2,633	소프트웨어	-624
음식료,담배	1,424	기계,장비	-474
인터넷	1,040	출판,매체복제	-393
CJ E&M	2,572	레고컴바이오	-1,206
내츄럴엔도텍	2,020	셀트리온	-1,169
인트론바이오	1,667	웹젠	-613
카카오	1,040	코나아이	-567
동서	774	서부T&D	-514

(체결기준:백만원)

은행			
순매수		순매도	
반도체	279	전문기술	-138
화학	180	금속	-86
운송장비,부품	160	금융	-50
원익머트리얼즈	166	제이콘텐츠리	-128
성우하이텍	149	한국토지신탁	-50
솔브레인	134	동양이엔피	-25
레고컴바이오	103	금강철강	-24
로만손	59	성광벤드	-22

보험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2,462	제약	-2,761
운송장비,부품	993	도매	-548
화학	336	인터넷	-443
CJ E&M	2,339	셀트리온	-1,081
아스트	508	바이넥스	-911
인터파크홀딩스	455	에이티넵인베스트	-452
보령메디앙스	315	다나와	-328
SK머티리얼즈	281	메디포스트	-308

◆KOSDAQ기관/외인당일매매상위업종및종목

(체결기준:백만원)

기관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9,487	반도체	-7,725
오락,문화	2,291	제약	-6,195
연구,개발	1,320	기계,장비	-5,294
CJ E&M	9,949	셀트리온	-4,642
내츄럴엔도텍	2,819	카카오	-4,59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353	에스에프에이	-3,837
인트론바이오	2,197	웹젠	-2,798
뉴트리바이오텍	1,202	레고컴바이오	-2,053
메디투스	1,077	바이넥스	-2,004
케어젠	989	이오테크닉스	-1,888
파라다이스	897	와이솔	-1,734
삼천리자전거	847	AP시스템	-1,527
동서	794	바텍	-1,460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인터넷	8,161	제약	-13,213
IT부품	3,465	통신장비	-2,066
기계,장비	3,182	오락,문화	-1,869
카카오	8,665	셀트리온	-9,065
에스에프에이	4,288	인트론바이오	-3,131
파트론	2,322	메디투스	-2,646
셀트리온제약	1,712	케어젠	-2,202
실리콘웍스	1,585	보성파워텍	-1,319
컴투스	1,580	슈프리마에이치큐	-1,270
코스온	1,244	씨씨에스	-1,214
에코프로	1,210	SK머티리얼즈	-1,196
내츄럴엔도텍	1,209	성우하이텍	-1,194
이오테크닉스	1,116	파라다이스	-1,183

주:외국인은외국인투자등록이되어있는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기관/외인연속순매수상위종목

(단위:일)

KOSPI				KOSDAQ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경동가스	29 일	신화실업	20 일	아이컴포넌트	34 일	나이스정보통신	39 일
KT	26 일	휴비스	14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26 일	포스코엠텍	35 일
삼성카드	25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4 일	진성티이씨	13 일	대동기어	20 일
SK증권	24 일	대덕전자	12 일	피에스케이	12 일	에이디칩스	17 일
디와이	23 일	서연이화	10 일	티비씨	10 일	인화정공	14 일
동양	20 일	신라교역	10 일	브리지텍	8 일	청담러닝	12 일
두산	16 일	동원	10 일	텍셀네트컴	8 일	화성	12 일
코오롱플라스틱	14 일	제일연마	10 일	팅크웨어	7 일	아프리카TV	11 일

◆기관/외인5일간누적순매수상위종목

(체결기준:백만원)

KOSPI				KOSDAQ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KODEX 레버리지	243,778	POSCO	125,006	인트론바이오	10,547	휴젤	22,957
기아차	76,675	LG화학	88,823	KH바텍	8,302	비아트론	19,757
현대중공업	56,746	SK이노베이션	71,283	씨젠	4,099	카카오	13,578
현대차	48,154	삼성전자	52,008	유진기업	3,609	파라다이스	10,189
신한지주	46,530	LG전자	50,132	삼천리자전거	3,199	이오테크닉스	8,746
현대모비스	45,102	NAVER	48,367	메디투스	2,955	파트론	7,987
KODEX 200	37,424	삼성SDI	43,488	팅크웨어	2,938	에스에프에이	7,461
삼성엔지니어링	35,899	고려아연	41,516	뷰웍스	2,664	셀트리온	6,533

◆기관/외인동반순매수상위업종및종목

(체결기준:백만원)

KOSPI				KOSDAQ			
종목	기관	외국인	합계	종목	기관	외국인	합계
화학	1,530	43,124	44,654	음식료,담배	924	1,702	2,625
기타금융업	11,722	23,234	34,956	화학	382	1,683	2,065
은행	732	7,601	8,332	연구,개발	1,320	601	1,921
한전KPS	6,791	9,863	16,654	내추럴엔도텍	2,819	1,209	4,028
신한지주	4,405	11,752	16,157	뉴트리바이오텍	1,202	862	2,064
아모레퍼시픽	2,331	11,224	13,555	컴투스	194	1,580	1,774
CJ CGV	9,560	2,072	11,632	휴비츠	495	984	1,479
아모레G	4,132	4,988	9,120	에프티이앤이	340	905	1,245
동양	3,779	4,729	8,507	툽텍	383	706	1,089
KB금융	1,445	6,598	8,043	파마리서치프로덕트	34	1,047	1,081
오리온	4,965	2,860	7,825	동서	794	265	1,058
한국콜마	5,870	1,519	7,389	우리산업	164	777	941
우리은행	3,435	3,441	6,876	강스템바이오	717	200	917

주:기관/외인동반순매수종목가운데기관/외인합계순매수금액이큰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기관/외인연속순매도상위종목

(단위:일)

KOSPI			
기관		외국인	
한국제지	36 일	삼성카드	24 일
코라오홀딩스	29 일	대성합동지주	24 일
텔코웨어	28 일	SIMPAC	21 일
넥센	27 일	한국타이어	19 일
롯데하이마트	26 일	현대에이치씨엔	17 일
SBS미디어홀딩스	25 일	NPC	17 일
이마트	21 일	동일제지	15 일
대상	21 일	대원강업	14 일

KOSDAQ			
기관		외국인	
엑시콘	27 일	우주일렉트로	30 일
녹십자셀	26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21 일
비아트론	23 일	참좋은레저	18 일
골프존	22 일	KB오토시스	18 일
파인디지털	19 일	한글과컴퓨터	15 일
덱스터	16 일	KJ프리텍	13 일
유니크	16 일	다나와	12 일
영풍정밀	15 일	넥스트BT	12 일

◆기관/외인5일간누적순매도상위종목

(체결기준:백만원)

KOSPI			
기관		외국인	
KODEX 인버스	-182,756	SK하이닉스	-102,251
삼성전자	-94,008	LG디스플레이	-36,966
SK이노베이션	-70,328	현대모비스	-28,669
한미약품	-66,386	기아차	-22,154
한미사이언스	-60,315	롯데케미칼	-18,077
LG전자	-49,051	현대차	-12,379
한국전력	-34,217	LG생활건강	-12,295
NAVER	-32,005	한국항공우주	-12,193

KOSDAQ			
기관		외국인	
셀트리온	-29,791	슈프리마에이치큐	-5,997
에스에프에이	-15,533	인바디	-4,965
휴젤	-8,896	삼천리자전거	-4,933
바이넥스	-8,575	인트론바이오	-4,523
AP시스템	-8,080	서울반도체	-4,408
셀바이오텍	-7,143	제우스	-3,694
비아트론	-5,906	SK머티리얼즈	-3,595
오스템임플란트	-5,163	메디톡스	-3,551

◆기관/외인동반순매도상위업종및종목

(체결기준:백만원)

종목	KOSPI		
	기관	외국인	합계
보험업	-54,851	-9,334	-64,184
의약품	-6,891	-4,592	-11,483
증권	-4,723	-5,885	-10,608
삼성생명	-28,163	-13,831	-41,994
현대건설	-5,890	-3,204	-9,094
한미사이언스	-8,268	-46	-8,314
롯데케미칼	-3,774	-3,988	-7,763
삼성물산	-7,087	-486	-7,574
삼성중공업	-4,935	-2,433	-7,367
동부화재	-6,470	-554	-7,025
엔씨소프트	-2,093	-4,213	-6,306
한미약품	-5,322	-85	-5,408
삼성에스디에스	-5,135	-201	-5,335

종목	KOSDAQ		
	기관	외국인	합계
제약	-6,195	-13,213	-19,408
반도체	-7,725	135	-7,591
통신장비	-1,857	-2,066	-3,923
셀트리온	-4,642	-9,065	-13,707
레고캠바이오	-2,053	-95	-2,148
바이넥스	-2,004	-54	-2,059
AP시스템	-1,527	-323	-1,850
아시아경제	-1,276	-147	-1,423
보성파워텍	-4	-1,319	-1,323
제우스	-458	-816	-1,274
슈프리마에이치큐	-1	-1,270	-1,271
파라텍	-67	-1,090	-1,158
디오	-159	-988	-1,147

주: 기관/외인동반순매수종목가운데기관/외인합계순매수금액이큰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공매도거래대상위종목

(체결기준:천주,백만원)

KOSPI		
종목	주수	금액
LG디스플레이	1,845	46,409
KODEX 200	674	17,012
POSCO	56	13,869
SK하이닉스	322	8,885
현대위아	85	8,782
현대건설	214	8,655
SK이노베이션	51	8,592
LG전자	131	8,260

KOSDAQ		
종목	주수	금액
카카오	21	2,146
셀트리온	17	1,906
바이로메드	13	1,855
파라다이스	111	1,796
로엔	19	1,378
셀트리온제약	50	1,373
비아트론	41	1,175
안랩	15	1,097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기준임

◆대차잔고상위종목

(체결기준:천주,백만원)

KOSPI		
종목	주수	금액
삼성전자	3,516	4,570,817
현대중공업	10,154	1,162,595
한미약품	1,769	1,158,529
POSCO	4,624	1,139,707
호텔신라	15,951	1,102,210
현대차	5,769	874,025
NAVER	1,183	796,077
삼성중공업	66,615	772,730

KOSDAQ		
종목	주수	금액
셀트리온	27,602	2,986,563
카카오	12,371	1,251,916
메디톡스	840	382,937
바이로메드	1,979	288,996
파라다이스	11,509	187,603
컴투스	1,400	171,651
이오테크닉스	1,277	154,528
코미팜	3,647	142,769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기준임

◆대차잔고5일간누적순증/감상위업종및종목

(체결기준:천주)

KOSPI			
	순증		순감
증권	12,511	전기전자	-2,970
서비스업	5,540	통신업	-1,188
기계	5,284	화학	-868
두산인프라코어	5,175	SK하이닉스	-3,034
대우증권	4,502	한진해운	-2,297
삼성엔지니어링	3,822	기아차	-962
메리츠증권	3,088	LG유플러스	-897
동양	2,141	KEC	-845
팬오션	2,002	금호타이어	-751
하이트진로	1,837	삼성생명	-739
GS건설	1,774	하나금융지주	-683
아이에스동서	1,451	SH에너지화학	-618
SK증권	1,361	GKL	-547

KOSDAQ			
	순증		순감
반도체	1,949	인터넷	-1,158
제약	1,241	통신장비	-657
IT부품	990	화학	-344
STS반도체	1,970	카카오	-734
한국토지신탁	676	티케이케미칼	-600
셀트리온	610	이상네트웍스	-447
오성엘에스티	460	에이스테크	-409
이스트아시아홀딩스	404	에스앤씨엔진그룹	-360
위지트	400	오스탐임플란트	-343
파나진	299	동서	-322
이엘케이	234	에스에이엠티	-311
에스코넥	227	완리	-292
파루	226	포스코엠텍	-273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증시거래주체별매매동향

(단위:십억)

구분	연간누계	월간누계	5일간누계	4/11(월)	4/12(화)	4/14(목)	4/15(금)	4/18(월)
외국인	1,833.2	1,115.9	953.4	-15.7	116.0	550.3	102.8	200.0
기관계	286.6	-1,384.1	-173.2	-128.4	-102.8	174.1	25.0	-141.1
(투신)	-1,005.6	-341.1	-124.0	23.5	21.8	4.8	-115.4	-58.7
(연기금)	307.4	-49.3	-44.1	-34.0	6.4	25.6	-69.8	27.7
(은행)	-316.7	-99.3	-57.7	-3.9	-21.6	-32.2	-1.3	1.3
(보험)	2,580.3	-3.2	25.5	-7.3	20.3	31.5	-26.7	7.7
개인	-2,263.8	-213.5	-952.6	81.0	-88.5	-791.3	-109.5	-44.5
기타	144.0	481.7	172.4	63.0	75.3	66.8	-18.3	-14.4

주:KOSDAQ제외

◆증시자금동향

(단위:p,십억원,%)

구분	2013	2014	2015	4/8(금)	4/11(월)	4/12(화)	4/14(목)	4/15(금)
KOSPI	2,011.3	1,915.6	1,961.3	1,972.1	1,970.4	1,981.3	2,015.9	2,014.7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1,526.8	21,944.2	21,651.7	21,639.8	21,863.4
(증감액)	-3,802.5	1,630.7	6,853.1	-634.6	417.4	-292.5	-11.9	223.6
(회전율)	29.9	34.0	28.8	36.4	32.3	33.7	46.1	36.0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459.0	371.5	-230.0	117.8	163.9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268.3	3,273.2	3,288.0	3,284.9	3,271.3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3,782.8	3,798.7	3,811.5	3,818.5	3,819.9
미수금	92.9	117.6	151.0	138.2	162.0	149.1	157.6	154.8

주1:실질예탁금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증분)/고객예탁금회전율=(KOSPI,KOSDAQ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까지제공,KOSCOM

◆국내수익증권유출입동향

(단위:십억원)

구분	설정잔액	연간누계	월간누계	4/7(목)	4/8(금)	4/11(월)	4/12(화)	4/14(목)
전체주식형	81,279	-365	-812	-106	-199	-49	-195	-189
(ex.ETF)		-817	-260	-74	-29	-7	33	-10
국내주식형	62,854	-712	-822	-81	-207	-53	-198	-209
(ex.ETF)		-1,161	-270	-51	-37	-11	31	-31
해외주식형	18,424	347	10	-25	9	4	3	21
(ex.ETF)		344	10	-24	9	4	3	21
주식혼합형	8,177	3	11	9	-2	1	2	0
채권혼합형	30,612	-115	-208	17	1	-7	0	-3
채권형	93,916	7,116	973	197	191	39	259	245
MMF	111,010	17,146	7,563	-285	54	-957	781	-727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까지제공,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주요이머징마켓외국인매매동향

(단위:백만달러)

국가	연간누계	월간누계	5일간누계	4/12(화)	4/13(수)	4/14(목)	4/15(금)	4/18(월)
한국	1,590	969	843	101	-	477	90	174
대만	4,990	341	911	-37	508	200	239	-
인도	1,140	-74	64	64	-	-	-	-
인도네시아	376	63	-1	19	-7	-15	2	-
태국	372	-171	-16	-16	-	-	-	-
남아공	-1,804	-521	-303	-115	-16	-117	-55	-
필리핀	15	-61	-34	-1	-14	-11	-8	-

자료: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주요금리, 환율및원자재가격

(단위:%,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4/11(월)	4/12(화)	4/14(목)	4/15(금)	4/18(월)
회사채(AA-)	2.11	1.93	1.93	1.97	1.96	1.98
회사채(BBB-)	8.06	7.92	7.92	7.96	7.95	7.97
국고채(3년)	1.66	1.46	1.46	1.50	1.49	1.51
국고채(5년)	1.81	1.56	1.56	1.60	1.60	1.61
국고채(10년)	2.08	1.79	1.79	1.84	1.84	1.85
미국채(10년)	2.27	1.72	1.76	1.79	1.75	-
일국채(10년)	0.27	0.08	0.07	0.09	1.12	-
원/달러	1,172.50	1,146.50	1,145.80	1,156.70	1,146.20	1,150.20
원/100엔	972.63	1,060.69	1,055.94	1,060.12	1,054.08	1,057.76
엔/달러	120.55	108.09	108.51	109.11	108.74	108.74
달러/유로	1.09	1.14	1.13	1.12	1.13	1.13
DDR31Gb(1333MHz)	1.00	0.89	0.89	0.88	0.88	-
DDR32Gb(1333MHz)	1.13	0.94	0.94	0.94	0.94	-
NANDFlash16Gb(MLC)	1.46	1.37	1.37	1.38	1.39	-
CRB지수	176.81	171.82	175.48	174.77	174.31	-
LME지수	2,217.9	2,214.4	2,264.8	2,296.9	2,289.7	-
BDI	478	555	560	597	635	-
유가(WTI, 달러/배럴)	37.04	40.36	41.76	41.50	40.36	-
금(달러/온스)	1,060.00	1,254.75	1,245.75	1,233.85	1,227.10	-

자료: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1	12	13	14	15
中>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3%, 2.4%, 2.3%) 美> Dudley 연준부외장 연설 (투표권 보유)	독일>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3%, 0.3%)	中> 3월 수출 YoY (11.5%, 10.0%, -25.4%) 3월 수입 YoY (-7.6%, -10.1%, -13.8%) 美>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0.3%, 0.1%, 0.0%) 유럽> 2월 산업생산 MoM (-0.8%, -0.7%, 1.9%)	美> 베이지북 발간 Powell 연준이사 연설 (투표권 보유) 3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n/a, 0.2%, -0.2%) 中> 3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n/a, 13.5%, 13.3%) 3월 신규대출 (~15일, 십억위안) (n/a, 1,100.0, 726.6) 유럽>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1%, -0.2%)	中> 1분기 GDP (n/a, 6.7%, 6.8%) 3월 광공업생산 YoY (n/a, 5.9%, n/a) 3월 소매판매 YoY (n/a, 10.4%, n/a) 美> 3월 광공업생산 MoM (n/a, -0.1%, -0.5%) 韓> 3월 실업률 (3.8%, 3.9%, 4.1%) 日> 2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6.2%)
18	19	20	21	22
美> Dudley 연준부외장 연설 (투표권 보유) Evans 연준이사 연설(16일) 세계> OPEC 회의(17일) 실적발표> 韓 한샘, 두산건설 美 모간스탠리, IBM	韓> 금통위 금리 결정 (n/a, 1.50%, 1.50%) 美> 3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70, 1,178) Rosengren 연준이사 연설 (투표권 보유) Kashkari 연준이사 연설 독일> ZEW 서베이 예상 (n/a, 8.0, 4.3) 실적발표> 韓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美 넷플릭스, 유니티 테드 헬스, 존슨앤드존슨, 필립 모리스, 골드만삭스, 야후	美> 3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n/a, 5.26, 5.08) 日> 3월 수출 YoY (n/a, -7.0%, -4.0%) 실적발표> 美 인텔, 코카콜라, 쿨컴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40%, -0.40%) 실적발표> 韓 포스코대우, 신한금융지주, 포스코, 제일기획, KT&G, LG화학, KB금융지주 美 바이오젠, 버라이즌, 제너럴 모터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비자, 알파벳	유럽> 4월 마켓 예비 제조업 PMI (n/a, 51.9, 51.6) 독일> 4월 마켓 예비 제조업 PMI (n/a, 51.0, 50.7) 실적발표> 韓 하나금융지주 美 GE, 김벌리클라크, 맥도날드, 캐터필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AMD
25	26	27	28	29
美> 3월 신규주택매매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韓> 1분기 GDP	美> FOMC 통화정책회의 1분기 GDP 日> BOJ 통화정책회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韓> 3월 광공업생산 YoY 유럽> 1분기 GDP 3월 실업률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